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orea Communications Agency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보도자료

2019년 9월 4일(수) 배포 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파검사본부 차장 전인석 (031) 350-1593
배포: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061) 350-132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어민 안전확보를 위해 앞장서다.
- 제5회 해양안전엑스포 참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 원장 서석진)은「소형어선 안전을 위해 개발한 VHF-DSC 조난신호 원격·자동발사장치(이하 발사장치)」의 홍보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제5회 해양안전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전시하는 발사장치는 KCA의 주요사업인 무선국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형어선의 인명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KCA가 개발한 발사장치는 2톤 이상 어선에 의무로 장착되어있는 VHF-DSC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선원이 선외 추락 시 휴대하고 있는 송신기로 직접 조난신호를 발사하거나, 자이로센서를 장착하여 선박의 전복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조난신호를 발사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 장비에 부가장치를 장착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없이 즉시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관련 담당자는 "발사장치가「2019년 기획재정부 중점 혁신과제 10선」에도 선정된 만큼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해상 인명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상 무선설비 제조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 설 것" 이라고 말했다.